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 세금 성공 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7/ 14 통권 1527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수출역군 금형산업

### 7.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 박윤종 회계사 :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하는 부동산계약에서 건물부  
가세 안분계산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내
-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용역제공대가 중 일부를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  
하는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함 (p.12)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포함과 합산제외 대상 판단방법 >

개념, 구분		합산범위와 대상, 합산배제유형
합산과세 포함 (매년 6월 1일 기준)		① 일반 1주택(1주택부터 모두 과세됨) ② 일반 2주택 이상 합산과세, ③ (일반주택 1개+장기임대민간임대주택도 합산) ④ 2주택(1주택+조 정지역 내의 민간임대주택), ⑤ 다주택자
과세금액 계산방법		(각 주택 공시가격 - 6억원) × 95%,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 9억 원) × 95%, 종합합산토지 : (토지공시가 - 5억원) × 95%, 적용세율 : 0.6% ~ 3%까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되는 경우들	민간임대 주택	(2018. 3. 31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 전용면적 149㎡ 이하로 2호 이상( 또는 공시가격 9억 이하) + 5년 이상 계속임대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공공임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 5년 이상 임대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다가구 임대주택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05년도 공시 가 3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임대
	기숙사 · 사원주택	종업원용 무상, 저가 + 공시가 3억 이하 + 기숙사(또는 가정 어린이집 용 주택)
	미분양 주택	2008년까지 미분양된 매입임대주택, 전용 149㎡ 이하, 5호 이상 임대, 공시가격 3억 이하, 5년 이상 임대, 수도권 밖
	수도권 외 1주택	2009년 1. 1. ~ 2011. 12. 31. 까지 납세의무성립된 주택 : 2012년부터 취 득분은 합산과세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안세 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7 호 / 주간 28호

2021. 7. 14.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포함과 합산제외의 대상 판단방법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하는 부동산계약에서 건물부가세 안분계산	2
C E O 에 세 이	수출역군 금형산업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등기소유권외 -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 설비 무상임대 - 전력비 절감효과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증여와 양도 개념의 차이와 세무상 쟁점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9 10
직 장 인 Survival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1395, 2020.11.27)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용역제공대가 중 일부를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12
세 무 정 보	- 202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내 -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15 39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하는 부동산계약에서 건물부가세 안분계산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부동산의 일괄공급계약에 포함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계산
1. 토지와 건물	대부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부가세 면제되는 토지가와 건물부분가액 및 건물 해당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 있음
2. 부가세법 제29조	제9항 : 토지, 건물 함께 공급시 실거래기재가액을 건물공급가로 함. 단 실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가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함
3. 실거래가액	부동산의 최초분양 또는 법인간 거래인 경우 건물분 매출세액(납부)과 매입세액(공제)을 별도로 분명히 기재(시세의 30% 이내 차이)하면 이에 따름. 예를 들어 실계약서에 토지 10억+건물 4.5억+부가세 4천5백 = 총거래액 14.95억원이면 분명기재임.
4. 기준시가 안분 (시행령 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방법을 적용하여 안분함[토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환산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고시가(= 신축가×구조·용도·내용연수 감안)]</li> <li>• 계산산식 : <math display="block">\frac{\text{건물분 부가세}}{\text{부가세 가액}} = \frac{\text{총공급가액}}{\text{토지공시지가} + \text{건물기준시가} \times 1.1} \times \frac{\text{건물기준시가} \times 0.1}{1}</math></li> </ul>
5. 감정가액 우선	기준시가보다 합리적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로 안분계산함
6. 안분계산사례 (감정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p>일괄공급가격 : 15억원(토지공시지가 6.7억원, 건물기준시가 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 = <math>15\text{억원} \times \frac{6.7\text{억원}}{6.7\text{억원} + 3\text{억원} \times 1.1} = 1,005,000,000</math></li> <li>• 건물가액 = <math>15\text{억원} \times \frac{3\text{억원}}{6.7\text{억원} + 3\text{억원} \times 1.1} = 450,000,000</math></li> <li>• 건물부가세 = <math>15\text{억원} \times \frac{3\text{억원} \times 0.1}{6.7\text{억원} + 3\text{억원} \times 1.1} = 45,000,000</math></li> <li>총합계 1,500,000,000</li> </ul>

## 수출역군 금형산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요즘 한국정치·권력자들을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1889~1970. 한국명 석호필 石虎彌)박사가 보면 바로 '허세, 핑계, 부패'로 얼룩져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일갈하지 않을 수 없을게다.

그는 영국계 캐나다인 의사로 세브란스에 근무하면서 1919년 3월1일, 일제히 일어났던 3·1운동의 유일한 외국인 협조자였다. 3·1운동을 해외에 널리 알린 3·1운동 33인 외 34인이라고 칭송받으며 한국을 그지없이 사랑한 귀화인이다. 그가 어려운 백성들이 선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서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조선독립'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듯 오늘의 한국경제도 많은 근면 성실한 한국인들에 의해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같은 경제성과를 올리고 있다.

수출역군으로 눈에 띄는 제품들은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이다. 그런데 이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제품과 부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산업이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대미 수출을 기록했다.

에이테크솔루션, 나라엠앤디, 재영솔루텍 등을 비롯한 국내 1500곳 금형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금형업계수출은 28억 8055억달러(3조2700억원)를 기록해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98%를 차지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금형업계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미국수출이 3억8717만 달러(440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13.4%)을 차지했고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신윤문 금형조합이사장(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은 지난 3월14일 한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판매호조를 비롯해 코로나19에 따른 '집콕'영향으로 삼성·LG전자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북미지역에서 급증해 금형업계수출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복수의 금형업체는 프랑스 르노그룹과 3년 장기계약을 맺고 르노의 팔리스만(SM6), 캡처, 메간, 칸구, 마스터 등 차종을 만드는데 쓰이는 금형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주목할 것은 코로나19백신을 20%증산하는 효과로 주목받는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LDS)백신주사기다. 일본도 금형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이 주사기를 이회사는 월 2000만개 생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테슬라·벤츠·포르쉐·르노·토요타·닛산 등 전세계 유명자동차엔 모두 한국금형기술로 짚어낸 부품을 쓰고 있다. 독일·일본·미국·중국 등과 함께 세계5대 금형생산국이다. 수출규모는 6년째 세계2위다.

"기계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대일무역흑자를 보이는 품목이 금형"이라며 "일본은 더 이상 경쟁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금형기술은 세계최고강국 독일의 문턱을 넘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2일 (금)	7월 5일 (월)	7월 6일 (화)	7월 7일 (수)	7월 8일 (목)
미	달	러 (USD)	1132.20	1134.50	1130.30	1131.80	1137.60
일	본	엔 (JPY)	1014.93	1020.92	1018.84	1023.00	1028.48
캐	나	다 달 러 (CAD)	910.20	920.45	916.22	908.35	911.50
홍	콩	달 러 (HKD)	145.78	146.07	145.51	145.71	146.45
위	안	화 (CNH)	175.01	175.06	174.71	175.14	175.61
유	로	화 (EUR)	1341.15	1345.63	1340.99	1337.90	1341.97
호	주	달 러 (AUD)	845.36	853.54	852.47	848.11	851.55
싱	가	폴 달 러 (SGD)	839.13	841.96	840.56	839.74	843.3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2.23	272.49	271.97	272.36	273.33

## 등기소유권외

**Q** 1. a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전환청구후에 당사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은 어떤것을 확인 하나요?

2. 전환사채 전환권가치포함 35를 전환하여 그 차액을 전환이익, 계정으로처리하고자 하는데 전환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지요?

**A** 1. 전환권 행사에 따른 등기소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계정과목이란 법률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자신들의 거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환권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애초 사채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됩니다.

##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Q** 일본 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A**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되므로,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가지급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 취득가액 확인시)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자 부담이지만 양수인이 대리납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1만분의 43입니다.

## 설비 무상임대

**Q**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서 무상으로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산의 이동 후 무상으로 사용하는게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상이라도 계약서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설비는 정부보조금으로 진행된 연구시험장비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A** 특수관계자간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주고 받아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전력비 절감효과

**Q** ESS설비를 통해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삼성 SDI의 설정 오류로 인해 100%가 아닌 90% 절감효과만 전력비 차감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금액을 보존해준다면 회계계정을 전력비 차감인지 잡이익인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처럼 보상성격이 아닌 미 절감된 금액만큼만 보존해주는 성격(배상차원X)으로 매월 정산할 예정인데..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우리사주인출금은 법인의 거래가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원간이나 임직원 개인의 거래내역이므로 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습니다.

#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여부로 구분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형태로도 나타나므로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등 유사비용과 구분이 매우 어려운데, 접대비와 지출 형태가 유사한 비용들과의 구분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한다.

구분	접대비	기부금
지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등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원재료 등의 구매, 수익창출에 따른 답례,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등과 관련된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li> </ul>
지출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관련 관계자로 거래상대방, 거래의 중개·알선·조정자, 사업의 지도·감독·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산입·기부금 인정단체가 아닌 자 등에게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li> </ul>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비용의 구분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비용으로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접대비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지출이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않는 비용이다.

구 분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현 물제공	•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 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장려금을 초과 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 사전광고 등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실적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지 급에 차등을 두어도 인정됨
할인료 등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하거나, 약정 또는 할인가준을 초과하여 할 인하는 금액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할인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할인 하 는 금액
경품 · 사은품 등	•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은 품 등	•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은품 등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상품·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이다.

구분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출성격	• 업무와 관련된 지출	• 업무와 관련된 지출
지출상대방	• 업무관련 특정인	• 불특정 다수

###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반영

법인이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된다.

거래상대방	채권포기 유형	처리내용
특수관계자 외 의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손금산입
	없는 경우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포기	손금불산입(기부금)
	업무와 관련 없는 채권의 포기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증여와 양도 개념의 차이와 세무상 쟁점

구분	내용	세무상 쟁점
증여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증여세, 배우자 등 이월과세
양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 다주택 중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	기본세율+20%	배제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30%	배제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주요 쟁점사항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5년 이내 증여받아 양도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단 부담부증여시 채무분은 양도로 이월과세 적용 안됨)
대상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취득가액 필요경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적용(단, 증여세는 필요경비 공제, 취득세는 불공제)
취득시기	수증자의 등기접수일
비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글로벌 법인세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과세대상기업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 (삼성전자 등 100여곳)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과세 내용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한 과세권을 본사 소재지국뿐 아니라 매출 발생국에도 배분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과세제외업종	채굴업, 금융업	국제해운업



## 개인형 IRP 어떤 장점 있나

납입금액	연 1800만원 안에서 원하는 만큼 납입 보너스 등 받을 경우 일시 추가 납입도 가능
세제혜택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 방식	가입자 연령과 성향에 따라 운용방식 변경 가능 전체 적립금 70% 내에서 공격자산 투자 가능
복리효과	적립금 수익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없이 이연 그대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효과 볼 수 있어



##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뭐 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화안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여섯째는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네가 이 7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 최 신 판 례 예 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용역제공대가 중 일부를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 질 의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금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제과-1769, 2020.11.30

### 질 의

-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 회 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1633, 2020.05.26

### 질 의

- ○○○ 골프장은 2017.11.29. 준공된 골프장으로 재무제표상 골프장 토지부문 ○○○억원과 별도로 토지상 일부에 잔디를 구축한 \*\*\*억원을 코스계정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잔디에 대하여는 잔디보충비를 지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 골프장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 가능한 지, 손상된 잔디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인지

## 【회 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1395, 2020.11.27

## 【질 의】

-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은 해당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며

-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융채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4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 사업연도에 A·B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후
  -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44④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계상하고자 함

## 질의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A·B법인) 중 A법인만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 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107만명이다.

### 2023년부터 연 매출 27조 넘기면 디지털세 과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SK하이닉

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배분 방식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식이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필라1디지털세에 대해선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스위스 비밀계좌' 이전 못 숨긴다... 국세청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감금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한국 국세청만이 아니라 주요국들 역시 같은 협정 등을 통해 각국의 계좌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그간 비밀계좌나 페이퍼컴퍼니로 유명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탈세와 조세회피가 국가 재정을 흔들만큼 큰 위협이 되자 각국이 국경 칸막이를 걷고 탈세방지를 위한 공조와 공유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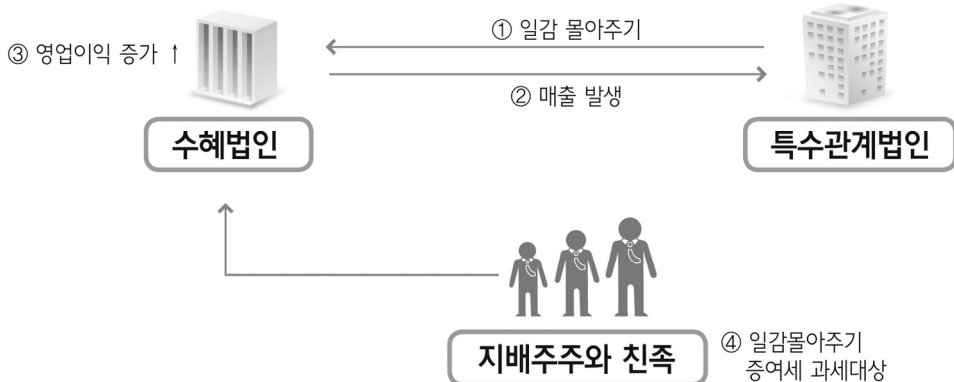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전자결제대행사를 거치는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2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설명자료

- 국세청, 2021. 6

## 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 1 개 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이하 '일감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 3).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2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가. 수혜법인

-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 나. 지배주주

-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 최대주주등(상증령 § 19②)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 특수관계인 : 상증령 § 2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1) 지배주주의 판정

-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해당 개인주주

- 직접보유비율(상증령 § 34의3①1)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으로 나눈 비율  
 \* 자기주식은 제외되므로 지분계산시 환산  
 예)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20%), 갑 30주(30%)  

$$\left[ \frac{\text{보유 주식수}}{\text{발행주식수} - \text{자기주식}} \times 100 \right] = \left[ \frac{30}{100-20} \right] = 37.5\%$$
 \* 간편식 :  $30\% \div (1 - 20\%) = 37.5\%$

-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등 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습니다(상증령 § 34의3①2).

◎ 간접보유비율(상증령 § 34의3②)

- 개인과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

- ③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3①2 후단, 상증규칙 § 10의7).
  - ㉠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 지배주주 해당부부 판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합니다(상증령 § 34의3②).
    - ※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증여의제이의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와 다릅니다. 지배주주 판정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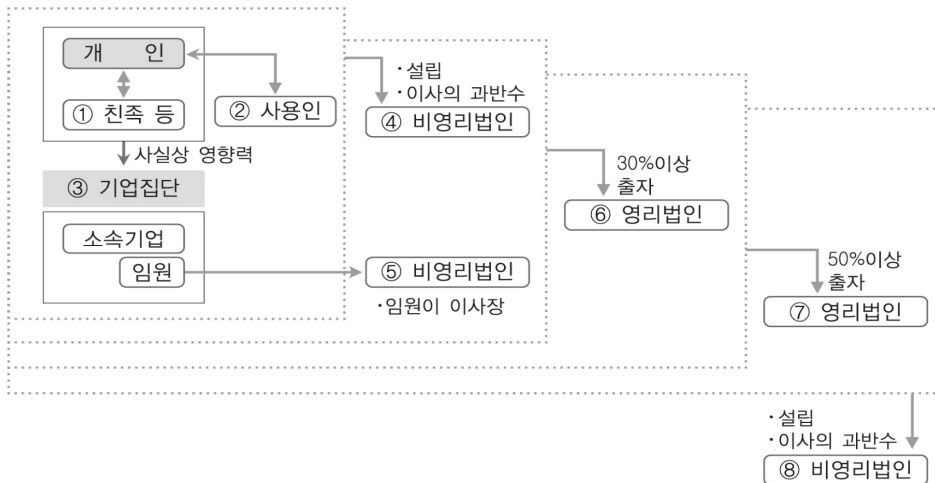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12의2 제1항 제3호 ~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도]

\* 번호는 상증령 § 2의2① 각호와 동일



## ◎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 2의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포함합니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상증법 §45의3①, ④ 및 상증령 § 34의3⑧).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

※ 부칙에 따른 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에서 제외

-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상증령 §34의3⑨)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합니다(상증령 § 34의3⑭ 2018.2.13.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 34의3⑧)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합니다(상증법 § 45의3④ 20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frac{\text{A·B법인에 대한 매출액(60억원)} - \text{과세제외매출액(20억원)}}{\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100억원)} - \text{과세제외매출액(20억원)}} \times 100$$

(4)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그 법인과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예시) 2020.12.31. 현재 지배주주인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그 특수관계 성립일이 2020.7.1.이고 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구 분	2020. 1. 1.~6.30.	2020. 7. 1.~12. 31.	연간매출액 합계
A법인에 대한 매출	20억원	30억원	50억원

답)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매출액 30억원이 아닌 연간 전체 매출액 50억원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특수관계법인에 포함

- 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14.2.21.(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구 분	사업연도 개시일	
	2014. 2. 21. 이전	2014. 2. 22. 이후
수혜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시	특수관계법인 제외	특수관계법인 해당

(6)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가)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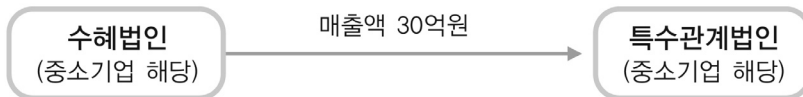
- 2014.2.21. 신설된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 34의3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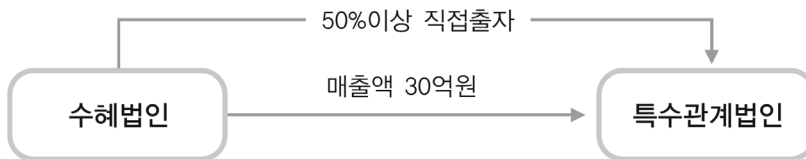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에 한정)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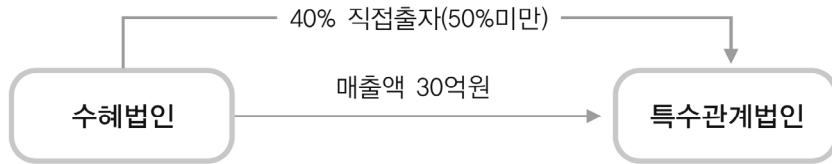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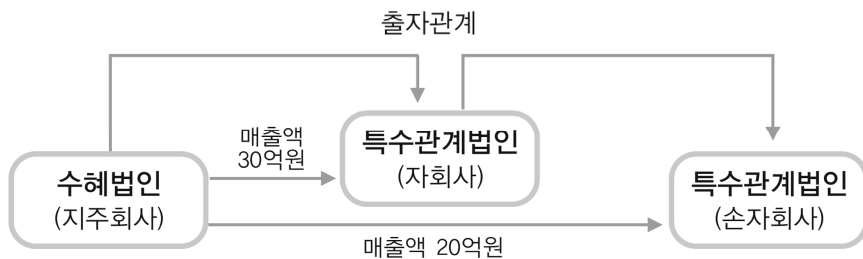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⑧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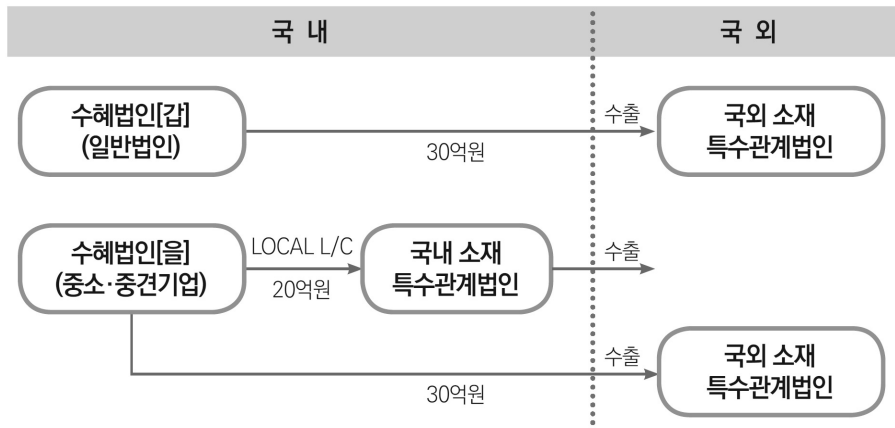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 40% = 12억원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④)



\* 과세제외매출액: 30억원 + 20억원 = 50억원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⑤)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 법상 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2771, 2016.1.18.)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⑥)

※ 2014.2.21. 상증령 부칙 제14조 제1항(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경과조치 개정)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사업연도 개시일	
	2016. 12. 31. 이전 개시	2017. 1. 1. 이후 개시
⑤ 제품·상품 수출목적으로 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 인과의 거래 ⑥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분자)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 (분자, 분모)

-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7,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상증령 §34의3⑧8,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또는 50%)을 초과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이 수혜법인이 되는 것입니다(상증령 §34의3⑤).

### ● 정상거래비율(상증법 § 45의3①, 상증령 § 34의3⑤)

-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법인은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 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 중소기업(상증령 § 34의3④)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
업종별 규모기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자산 규모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제외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30%이상 소유하면서 최 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3.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유예	<p>규모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최초 1회에 한함)</p> <p>* 유예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li> <li>2.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li> <li>3.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규모기준 제외)</li> <li>4. 창업일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 초과</li> </ol>
----	--

◆ 중견기업(상증령 § 34의3④)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
독립성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li> <li>2.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li> </ol>
매출액 기준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3 수증자

-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법 § 45의 3①, 상증령 § 34의3⑥).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임(서면법규과-1487, 2012.12.14)

◎ 친족의 종류와 범위

- 혈족: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 부계혈족: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부, 고모 등)
  - 모계혈족:외가의 혈족들(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
-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고모부, 이모부, 백숙모, 외숙모, 조카며느리 등
  -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형, 처남, 처제, 처조카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 4 증여자

-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 §4의2⑤).

## 5 증여시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상증법 §45의3③).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등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 \*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 가. 외국법인

-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

### 나.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 외국인투자자(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 \*\*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지 않음



## 제2장

## 증여의제이익 계산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

##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 34의3⑩1).

##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 ① 매출 누락액
  -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 :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세액
  -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 34의3⑩3)

$$\text{과세매출비율} = 1 - \left( \frac{\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포함)}}{\text{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right)$$

##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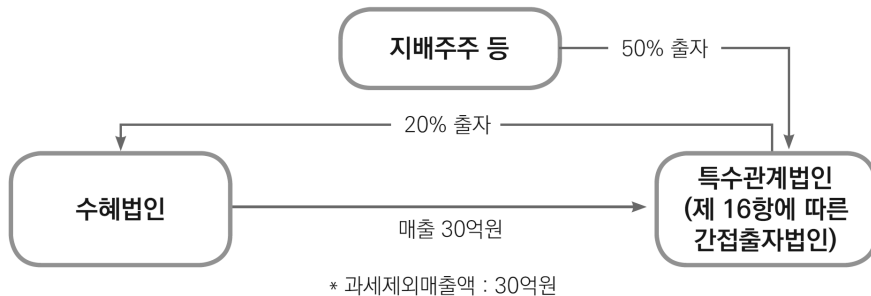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7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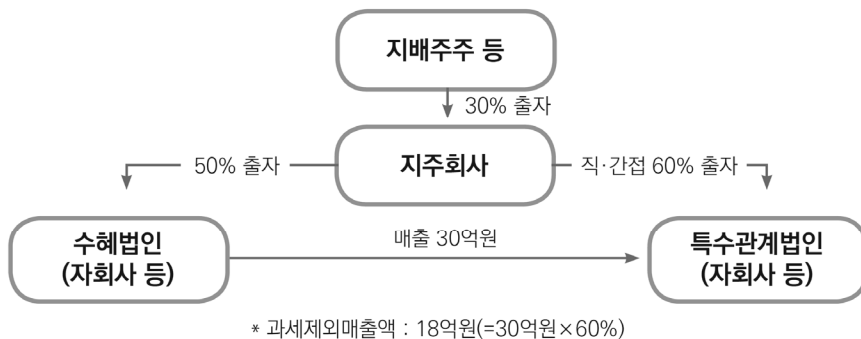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 34의3⑫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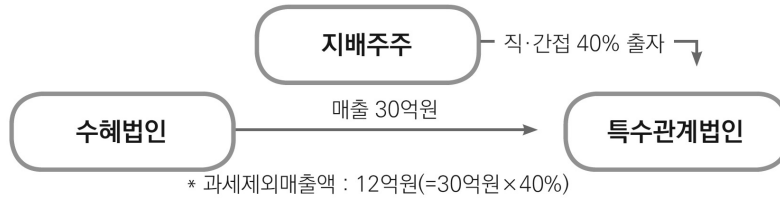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⑫2).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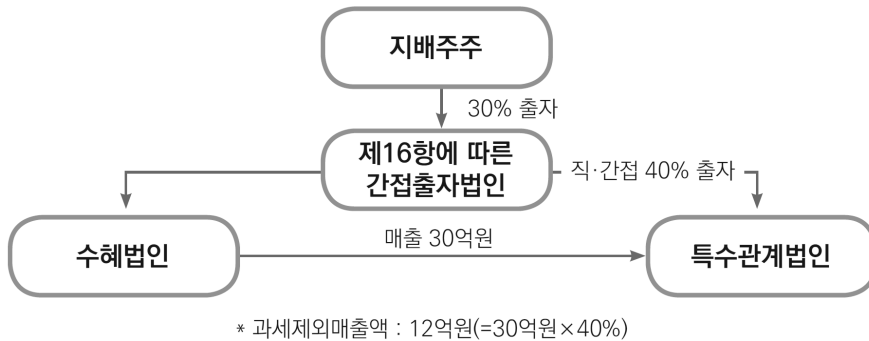


-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⑫3).



-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⑫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 34의3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율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82, 2014. 04. 02.)

- 과세요건 판단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율

$$1 - \left( \frac{\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right)$$

###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이란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합니다. (상증법 §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증령 § 34의3②).

\*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50%)·중견(40%)기업인 경우

$$\left(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0 \cdot 20\%$$

####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직접+간접)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0%	주식보유비율-10 %	주식보유비율-5%

- 중소기업·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상증령 § 34의3⑩)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비율 차감대상이 아님.

-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을 말합니다.
  -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에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비교
  - 지배주주 판정시(상증령 § 34의3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증령 § 34의3⑩)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과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5 증여의제이익 계산

## ◎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각 수증자별로 계산(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함
-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공제

## 가.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3⑬).

-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으로 합니다.

$$\text{배당소득} \times \frac{\text{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상증령 § 34조의2⑪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 중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①)

-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 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배당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수혜법인의 +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 수혜법인에 대한 ) 주식보유비율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나.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령 § 34의3⑦).

#### 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 라.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 47②)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 47①).

#### 마. 요약

수혜법인		과세 요건	요건 충족	증여의제이익 계산
중소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50%]×[주식보유비율- 10%]
	특수관계 법인거래 비율	> 50%		



중견기업	주식보유비율	〉 10%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20%]×[주식보유비율- 5%]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40%		
일반기업 (공시대상기업 집단포함)	주식보유비율	〉 3%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5%]×[주식보유비율- 0%]
	특수관계 법인거래 비율	〉 30%		

\* 요건판단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8개)}}$$

\* 증여의제이익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

## 제3장

## 증여세 신고납부 등

###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 68①, § 70).

\*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1.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1.6.30.입니다.

### 2 과세관할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나

- 201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수혜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 과세관할(상증법 § 6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9조의3 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소득령 §163⑩1).

$$\text{양도차익}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증여의제이익} \times \frac{\text{양도 주식수}}{\text{보유 주식수}})]$$

## 제4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서 작성방법 등

### 1 신고서 작성순서

1

#### ▶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부표 1)

-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나. 지배주주

다. 수증자

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나 - 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신청(부표 2)

다 - 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부표 3)

라 - 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증여자 등) (부표 4)

2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부표 5)

- 증여세 과세가액



## 3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 10호의3)

- 수증자, 증여자,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 2 신고서 작성 유의해야 할 사항

## ● 신고서상 주식보유비율 등 지분율 표기방법

(예시1)

- 수혜법인(A, 대기업)에 대한 1차 법인주주(B)의 주식보유비율 21.00%
- 1차 법인주주(B)에 대한 지배주주 甲의 주식보유비율 30.27%
- 이 경우 지배주주 甲의 간접보유비율은  $6.3567\% (=21.00\% \times 30.27\%)$ 로 계산함.  
다만, 신고서상 지분율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6.36%\*로 함.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신고서상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비율 표기방법

(예시2)

- 수혜법인A의 2020사업연도 매출액 12,000백만원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4,837백만원
- 이 경우 수혜법인 A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40.3083\% (=4,837\text{백만원}/12,000\text{백만원} \times 100\%)$ 로 계산함. 다만, 신고서상 비율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40.31%로 함.

## ● 신고서 서식에 표기된 산식에도 불구하고 세후영업이익 및 증여의제이익 등을 계산할 경우 주식보유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은 본래의 값에 의해 계산하여야 함.

※ 신고서상 표기된 비율 등에 의해 계산할 경우 증여의제이익 등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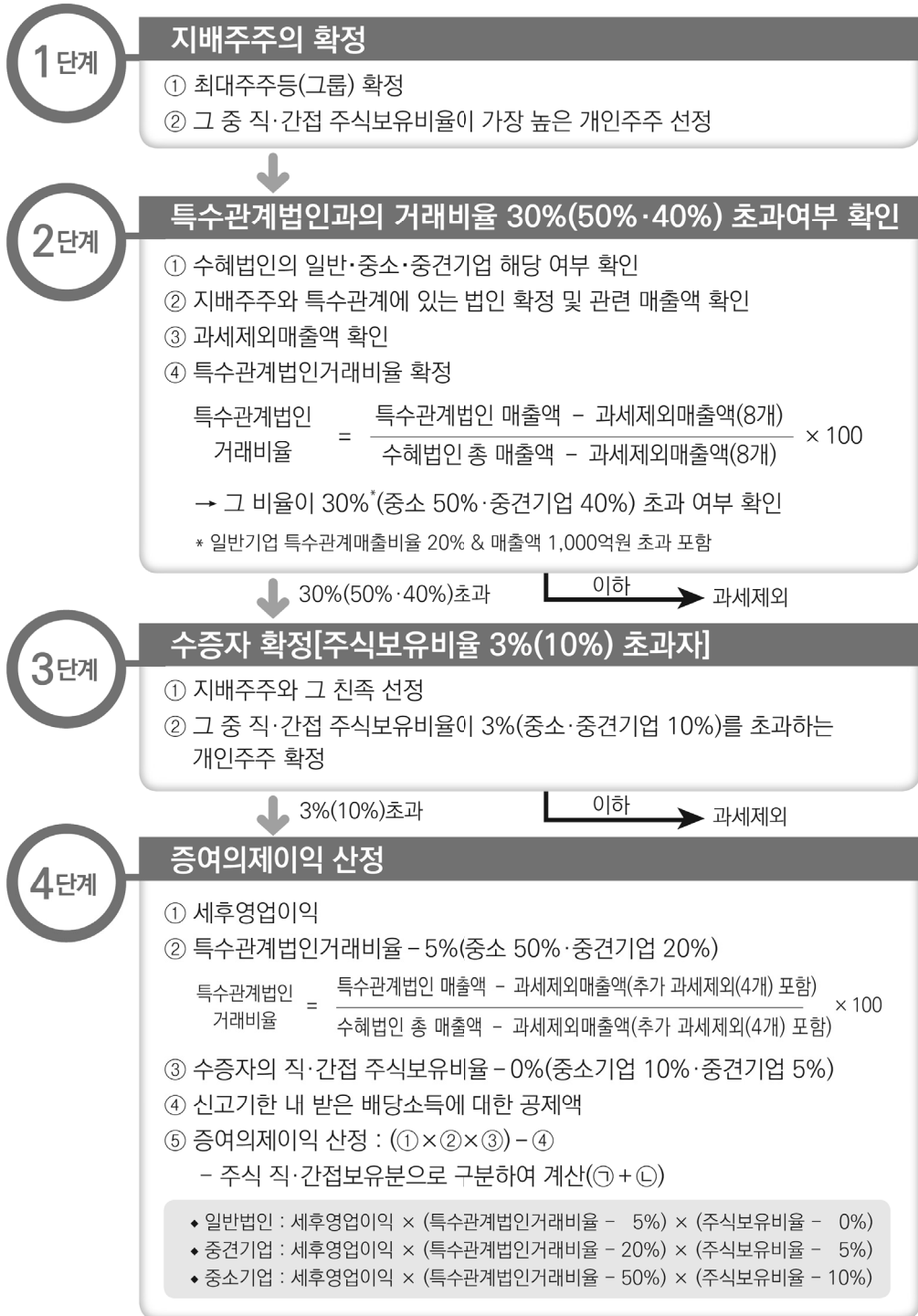
(예시3)

-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은 12억원일 경우, 甲의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은?

답) 26,933,338원

[잘못된 계산] 12억원  $\times (40.31\% - 5\%) \times 6.36\% = 26,948,592\text{원}$ [올바른 계산] 12억원  $\times [4,837\text{백만원}/12,000\text{백만원} - 5.00\%] \times [21.00\% \times 30.27\%] = 26,933,338\text{원}$

〈2021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 국세청, 2021. 7.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 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 집니다.
- (시범운영 실시)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여,
  - 시범운영 기간('21. 4. 1.~6. 30.)에 150천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 (납세서비스 확충)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 가기(Link)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효과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신고 편의)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 기부금단체는 '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부 활성화) 또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 조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국민 참여 등을 위해 '21. 4. 1.~6. 30.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 (제도 편의기능 홍보) 가급적 많은 이용자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선안내 및 방문설명, 안내문 발송, 언론·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대하여 개별 유선안내와 방문설명\*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고,
    -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소개, 시스템 발급시연, 참여 유도 및 의견청취
  - 대규모 고용법인\*과 기부금영수증 기발급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물과 사용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 \* (대상)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법인, (목적) 종사직원에게 연말정산 편의사항 등 공유
  - 또한, KTV '국세매거진'을 통해 홍보영상을 방송하고, 국세청 유튜브 영상 게시 및 국세청 홈페이지·SNS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 (시범운영 참여현황)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 홍보를 실시한 결과,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150천 명이 홈택스 발급시스템에 참여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650





만 전을 시범 발급하였습니다.

### 3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주요기능

- (실시간 조회)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고,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으며,
  - \* (주민등록번호) 210101-\*\*\*\*\*, (휴대전화 번호) 010-\*\*\*\*-1234,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
  -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메뉴 »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에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로부터 수집된 개선의견을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신속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올려주기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동시접속 기능도 보완하였습니다.
- (기부정보 접근편의 도모) 또한,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 |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

-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등을 제공
  - ▶ (행안부 1365기부포털)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보\* 등을 제공
    - \*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정보(단체소개, 모집목표액 등)

## 4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납세서비스 확충

- (모바일 발급서비스) 비대면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개별 발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발급요령'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 참고자료실

##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혜택에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 제도 활용 유인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정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

- (경로) ❶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 ❷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 ❸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 메인화면 메뉴별 제공기능

구분	메뉴명	제공기능
기부금단체 (5종)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기부금영수증 여러 건을 엑셀, txt 파일로 변환 전송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관리	기부자의 발급요청 승인처리
	④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 관리	발급목록 조회·수정·삭제 및 기부금영수증 등 법정서식 출력
	⑤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여부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기부자 (3종)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발급목록 조회, 수정 및 삭제요청, 기부금영수증 출력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기부금단체에서 미발급 시 발급신청
	③ 휴대전화 번호 등록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참고 2 -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 (발급방법) 기부금단체 인적사항 확인 > 기부자 인적사항 입력(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용 입력(기부일자, 금액 등) > 추가하기 > 등록하기

## 참고 3 -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 (발급방법) 기본사항 확인 > 제출할 파일선택 > 파일검증\* > 오류내용 및 검증결과 확인 > 제출하기
- \* 필수기재사항(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누락 여부 검증
- 오류조회 알림화면(오류건수, 오류항목 및 내용 확인 가능)

## 참고 4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기부금단체)
  -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 (조회방법) 기부일자, 신청일자, 기부자명,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발급내역 조회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내역 조회(기부자)
  -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목록
  - (조회방법) 발급신청여부, 기부일자, 신청일자, 기부금단체 등으로 조회 가능

## 참고 5 - 전자기부금영수증 수정발급

- ☐ 전자기부금영수증 수정(기부금단체)
  -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 조회하기
  - (수정방법) 발급 목록에서 수정대상 선택 > 수정버튼 클릭시 알림 생성 > 수정발급

## 참고 6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 (경로) 메인화면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 (화면기능) ‘단체검색’ 을 클릭하여 발급권한 유무를 확인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 담당자 등을 확인 가능함

## 참고 7 - 전자기부금영수증 손택스 시스템 이용방법

- ☐ (손택스 로그인) 인증서(공동 ·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지문인증으로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이용 가능
- ☐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메뉴 5가지 중 개별발급, 발급신청 관리, 발급목록 관리 등 3가지를 모바일 서비스 지원
  - \*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일괄발급,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기부금영수증 서식출력 등은 미제공

메뉴명	기능	모바일 제공
①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기부금영수증을 한 건씩 발급	○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기부금영수증 여러 건을 엑셀, txt 파일로 변환 전송	×
③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 관리	발급목록 조회·수정·삭제	○
④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관리	기부자의 발급요청 승인처리	○
⑤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여부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

## 참고 8 - 전자기부금영수증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방법

- ☐ 전자기부금영수증 부서사용자 아이디란?



- 기부금단체의 직원 다수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동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임

#### □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방법

-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아이디를 신청하고,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한 후 이용 가능함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참고
- ①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
- ② 신청 승인 :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부서사용자아이디 관리(신청목록 선택) > “사용” 선택후 저장하기

## 참고 9 - 예상 질문 및 답변

###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 ▶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

### 2.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 3.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 ▶ '21. 1. 1.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합니다.

### 4.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 1.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예) 기부일(1. 31.), 지정·고시일(6. 30.) → 6. 30. 이후 발급(기부일자 1. 31.로 기재)

5.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 ▶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

6. 휴대전화 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 ▶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 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

7.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 ▶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참고5]

8. 여러 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가능한지?

- ▶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ID를 신청하고,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사용가능합니다.

9.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가능한지?

- ▶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 모두 손택스에서 시스템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

## 참고 10 - 「기부포털」 등 주요 공시시스템 바로가기

---

□ 기부정보 접근 편의

-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에 바로가기 기능 구현

|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조회 사이트 |

-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등을 제공

- ▶ (행안부 1365 기부포털)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공시자료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정보\* 등을 제공

\*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정보(단체소개, 모집목표액 등)



## 참고 11 - 행정안전부 「기부포털」 개요

### □ 제도 개요

-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사·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를 통합 제공
  - 현행 1365기부포털을 확대 개편\*,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등록 · 사용 · 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 통합 공개 추진
  - \* 기부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 □ 주요 내용

- ① 기부단체정보 통합공개
  - \* 기부금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시각화 제공
- ②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제출 서류 전부 공개
  - \* (기존)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  
(개선)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 ③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의 전산화
  - \* 기부금품 모집등록, 모집등록증 발급,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을 전산화
- ④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 \* 특정 기부금단체 정보 통합검색,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소득공제 등 제도 안내

## 참고 12 -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개요

### □ 시스템 개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지정기부금 단체 등을 조회
-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대상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에 공시
- 주요 공시서류 :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 참고 13 - 기부금영수증 관련 법령

### - 법인세법

####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중략)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제17652호, 2020.12.22. 〉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중략) 100분의 5
  -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